

○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2.60원 하락한 1,100.30원에 마감
-------------	------------------------------

20일 환율은 달러 약세와 위안화 강세에 전일대비 2.60원 하락한 1,100.3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0.60원 상승한 1,103.50원에 개장했다. 개장 후 환율은 옐런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가 상원 청문회에서 강한 경기 부양 의지를 강조하여 글로벌 위험선호 분위기가 확산되어 1,098원대까지 하락하였다. 1,100원 아래에서 결제수요가 유입되면서 환율은 하락폭을 축소하여 전일대비 2.60원 하락한 1,100.30원에 마감하였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1,060.60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03.50	1103.50	1098.30	1100.30	1100.0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60.13	1061.75	1055.41	1060.33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37.46	1339.42	1328.61	1332.12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12	-0.71	-1.72	-3.16
	결제환율(수입)	0.12	0.48	0.84	1.28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美 부양책 낙관론에 따른 위험선호 분위기에... 1,090원대 후반 중심 등락 예상
--------------	--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0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100.30원) 대비 2.10원 하락한 1,098.15원에서 최고 호가 되었다. 금일 환율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부양책 낙관론이 위험선호 심리를 자극하여 하락이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통합을 강조하자 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평가하고 부양책 낙관론이 확산되어 미국 증시는 상승하였다. 이에 국내증시도 외국인 투심 회복에 상승폭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으며 원화도 장중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100원 위쪽에서 수출업체의 공격적인 매도가 계속되고 있어 환율 하락이 예상된다. 다만, 꾸준한 저가매수와 연초 연기금 해외투자 자금 집행은 환율 하락폭을 제한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095.50 ~ 1102.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368.18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2.10원 ↓
	■ 美 다우지수 : 31188.38, +257.86p(+0.83%)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80.48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39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